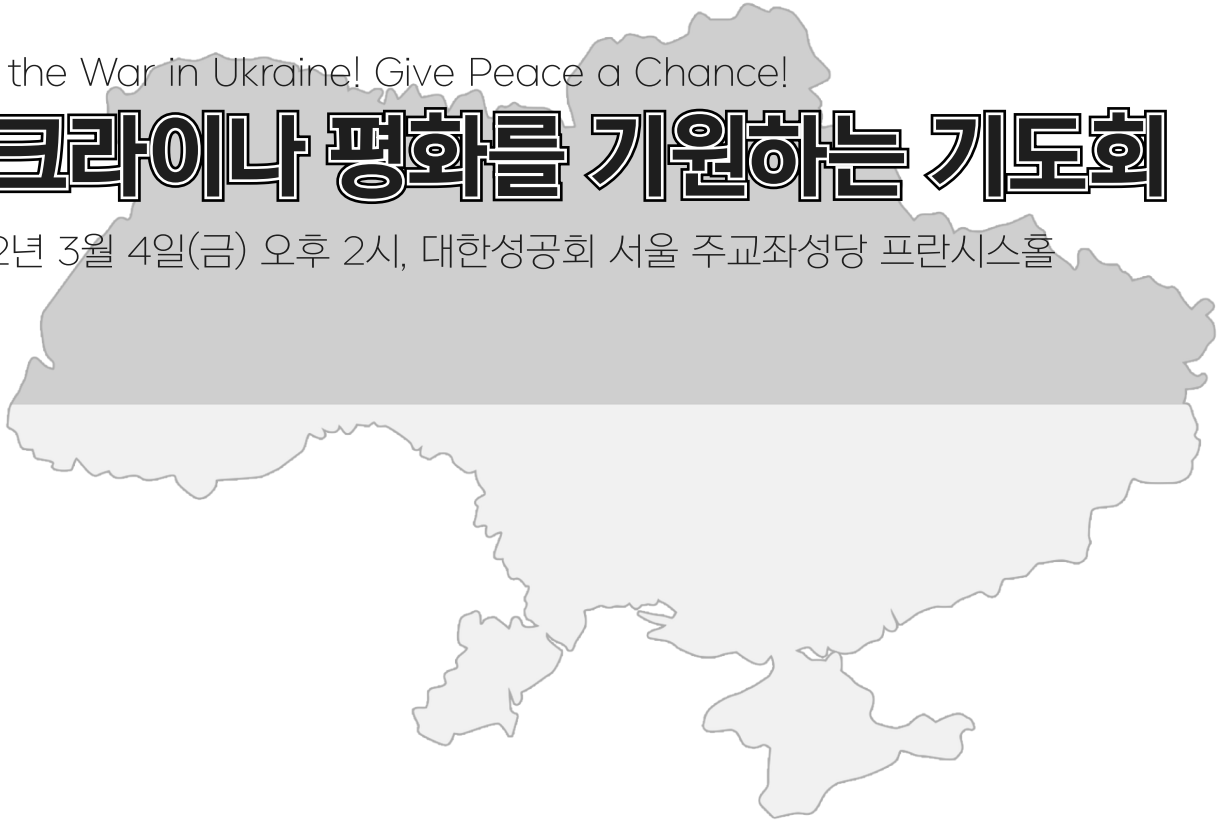


“못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여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시편 34:14, 공동번역)

Stop the War in Ukraine! Give Peace a Chance!

우크라이나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회

2022년 3월 4일(금) 오후 2시,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좌성당 프란시스홀



예배인도: 최준기 신부 (대한성공회 교무원장)

[예배의 부름]

인도자 “야훼를 찾아 호소할 때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합니다.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의 땅에 함께해주시고, 이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온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강의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를 갈망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못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여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시편 34:14, 공동번역)

[찬송] 다같이 * 공평한 주님 사랑을 (대한성공회 성가 357장)



1 공 평 한 주 님 사 랑 을 값 없 이 모 두 받 았 으 나
2 전 쟁 의 공 포 속 이 나 권 력 에 놀 리 신 음 하 고
3 피 난 처 찾 아 헤 메 고 우 리 의 도 움 바 람 때 에



날 마 다 욕 심 키 위 서 창 조 의 모 습 잃 었 네
베 고 파 우 는 사 람 들 모 두 가 형 제 자 메 라
주 님 의 사 랑 그 대 로 이 웃 을 사 랑 하 리 라



나 만 의 은 혜 탐 한 죄 오 주 여 용 서 하 소 서
우 리 가 외 면 했 으 니 예 수 님 슬 피 우 시 네
믿 음 을 행 한 손 길 로 은 혜 의 빛 을 갠 으 리

[중보기도]

+ 전쟁반대와 평화를 위한 기도 - 임종훈 사제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정교회)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전쟁은 비극의 시작이며, 반인륜적이고 반생명적인 폭력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떠한 전쟁도 정의롭거나 선한 전쟁은 없습니다. 반드시 희생과 반목을 낳을 뿐입니다. 전쟁은 인간의 존엄을 앗아갑니다.

아직도 전쟁으로 인해 시달리는 많은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전쟁은 세대와 세대에게 아픔과 상처를 남기고, 혐오와 증오가 대물림됩니다. 전쟁은 희망과 사랑을 앗아갑니다.

평화의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져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망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이웃들과 함께 평화와 평강을 나누는 것이 곧 복음의 길이고 평화의 길임을 고백하면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항상 나눔의 은총으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옵소서.

“못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여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시편 34:14, 공동번역)

+ 어린이, 여성, 청소년, 피난민들을 위한 기도 - 이영미 목사 (교회협 여성위원회 위원, 새가정 총무)

생명의 하나님! 3월의 봄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예수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귀한 사순절을 맞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봄은 따스하기만 한데, 전쟁의 얼굴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지하철 선로에 이불을 펴고, 남아있는 가족인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참전하기 위해 어린 딸을 마지막으로 포옹하며 눈물 흘리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 입맞춤으로 작별을 고하는 젊은 연인들을 보았습니다. 폭격으로 폐허가 된 놀이터와 유치원 어느 한 구석에서 겁에 질린 채 떨고 있는 커다란 눈망울의 어린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군사훈련인줄 알고 참여했지만, 생명을 죽여야 하는 전쟁의 한 복판에서 있는 청년들을 보았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속히 이 전쟁을 멈춰 주옵소서. 국가들 사이의 공생을 허물어 버리고, 국제법의 의무를 저버리면서 큰 고통을 일으키는 모든 행동을 멈추게 하옵소서.

수많은 나라들이 러시아를 향해 가하는 제재와 압박을 목도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향해 한 마음으로 지지하는 파랗고 노란 물결들을 목도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않고, 굳건히 투쟁하는 백성들을 돌봐주옵소서. 이들에게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전쟁을 반대하며 연대를 이어가는 우리들이 계속해서 더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령의 세미한 위로를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못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여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시편 34:14, 공동번역)

+ 우크라이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 - 로만 카브착 (Roman Kavchak) 학생

하나님, 우리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한 간절한 염원을 품으며, 그 땅에 발 딛고 버티는 자매와 형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했던 평화의 땅, 파란 하늘과 물의 평온함과, 노란 밀밭의 풍요로움을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우크라이나의 그리스도인들이 명분 없는 전쟁의 희생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에 노출되어 있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안녕과 평화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의인들을 돌아보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시편 시인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전쟁의 횡포와 폭압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이들의 헌신과 투쟁으로, 현재의 처절한 상황을 넘어,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중보와 연대로 함께 우크라이나의 고난에 함께해 이를 이겨나가는 역사가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영상] "전쟁을 멈춰주세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호소 * 스텔스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s3u1obRU-bY>

[현장증언] 엘레나 쉘겔(Olena Shchegel)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우크라이나어과)

- 타라스 쉘브첸코 키예프 국립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박사수료
- Korean Literature / Ukrainian Study

+ 발언 내용문은 별지로 드립니다



“못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여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시편 34:14, 공동번역)

[성서읽기] 시편 29편 11절, 야고보서 4장 1-10절 * **박병철 목사** (WSCF 아시아태평양지역 의장)

+ 시편 29편 1-11절

1 하느님을 모시는 자들아, 야훼께 돌려드려라. 영광과 권능을 야훼께 돌려드려라. 2 그 이름이 지니는 영광 야훼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빛 두르신 야훼께 머리를 조아려라. 3 야훼의 목소리가 바다 위에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느님께서 천둥 소리로 말씀하신다. 야훼께서 바닷물 위에 나타나신다. 4 야훼의 목소리는 힘차시고 야훼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친다. 5 야훼의 목소리에 송백이 찌개지고 레바논의 송백이 갈라진다. 6 레바논 산이 송아지처럼 뛰고 시론 산이 들송아지처럼 뛴다. 7 야훼의 목소리에 불꽃이 튀기고, 8 야훼의 목소리에 광야가 흔들거린다. 야훼 앞에서 카데스 광야가 흔들리고 9 야훼의 목소리에 상수리나무들이 뒤틀리고 숲은 벌거숭이가 된다. 모두 주의 성전에 모여 '영광'을 기리는 가운데 10 야훼, 거센 물결 위에 옥좌를 잡으시고 영원히 왕위를 차지하셨다. 11 야훼의 백성들아, 그에게서 힘을 얻고 복을 받아 평화를 누리어라.

+ 야고보서 4장 1-10절

1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분쟁을 일으킵니까? 여러분의 지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욕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2 여러분은 욕심을 내다가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남을 시기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면 싸우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느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구해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욕정을 채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4 절조 없는 사람들! 이 세상과 짝하면 하느님을 등지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이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원수가 됩니다. 5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심어주신 영혼을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 하는 성서 말씀이 공연한 말씀인 줄 압니까? 6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서에도 "하느님께서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총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7 그러므로 하느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여러분을 떠나 달아날 것입니다. 8 하느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씻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순결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9 여러분은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우십시오.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10 주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말씀나눔] 조성암 대주교 (한국정교회)

통역: **박인곤 보제** (한국정교회)

"There is no greater sin than war"

“못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여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시편 34:14, 공동번역)

[찬송] 다같이 * 너 근심 걱정 말아라 (382장)

1. 너 근심 걱정 정 말 아 라 주 너 를 지 키 리
 2. 어 려 워 낙 심 정 말 때 에 주 주 너 를 지 키 리
 3. 너 쓸 것 미 시 리 심 되 아 시 고 주 주 너 를 지 키 리
 4. 어 려 운 시 험 당 해 도 주 주 너 를 지 키 리

주 날 개 밀 에 거 하 라 주 너 를 지 키 리
 위 힘 한 일 에 을 당 할 때 주 주 너 를 지 키 리
 구 구 주 의 품 에 을 주 시 며 주 주 너 를 지 키 리

후렴

주 너 를 지 키 리 아무 때 나 어 디 서 나

주 너 를 지 키 리 늘 지 켜 주 시 리 (너를) 아 멘

“못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여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시편 34:14, 공동번역)

[연대발언] * 최소영 목사 (교회협 여성위원장,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총무)

* 황수영 선생 (교회협 화해통일원회 위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평화호소문] * 박세영 청년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전국연합회)

* 박소영 청년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회전국연합회)

+ 평화호소문은 뒷장에 있습니다

[평화의 인사] 이홍정 목사 (교회협 총무)

[축도] 장만희 사령관 (교회협 회장, 한국구세군)

[광고] _____

* 참담한 상황속에서도 기도회를 참여하신 로만 신부님 가족, 쉐겔 교수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기도회 이후, 침묵 행진(피켓을 들고)으로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우크라이나 여성, 어린이, 난민을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정교회, 한국정교회, NCCK" 가 긴급하게 모금을 진행합니다. 마음을 모아주세요.

신한은행 100-012-602907(한국기독교연합사업유지재단)

***우크+성명/단체명 명기 부탁드립니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가 답이다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시편 34:14)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9일째로 접어들면서 전쟁의 참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러시아의 무차별 포격으로 인해 이미 어린이들을 포함해 2,0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민간인들과 수천의 군인들이 사망하였고 러시아 군인들의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침공이 계속된다면, 수많은 난민과 이산가족이 발생할 것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전쟁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고 생명을 앗아가는 반인륜적 비극이다. 전쟁으로 인한 증오와 불신을 치유와 화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세대를 이어가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평화의 사도이신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시편 34:14)고 명하시고 있다. 우리는 “무기로 평화를 이룰 수 없으며, 평화는 평화적 수단에 의해 성취되어야 한다”는 신앙고백에 따라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우리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협의회(WCC),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이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연대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지난 3월 2일 열린 유엔 긴급총회는 압도적으로 러시아의 침공중단과 철군을 결의하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 그리고 평화권을 보장하는 부다페스트협정 등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제반 결의와 협정을 존중하여 침공을 즉각 중지하고 철군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러시아는 도네츠크, 루간스크 공화국 독립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문제를 무력이 아닌 대화와 외교를 통한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나토와 유엔 등은 우크라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평화협상을 즉각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러시아는 핵공격 준비발언을 통해 지구촌을 위협하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등의 국제기구와 정부들은 이에 즉각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한국 정부와 국제 사회는 인도적 지원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러시아의 침공 후 이미 일백만에 가까운 이들이 난민이 되었고, 침공이 계속된다면 400만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 온다.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 난민을 대대적으로 수용하고 즉각적인 인도적 지원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전쟁은 전쟁 피해국 뿐만 아니라 전쟁을 일으킨 당사국 국민들, 더 나아가 인류 모두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져다 준다.

이제 함께 일어나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희망을 위해 씬없이 기도하고 연대합시다!

2022년 3월 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우크라이나 평화 기도회 참석자 일동